젊을 때 안일하거나 방일 말라



新 불교사자성어

⑭ 파거불행(破車不行)

파거불행(破車不行)은 '부서진 수레는 움직이지 못한다' 는 뜻으로, 신라의 대표적 고승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 나오는 말이다.

'파거불행(破車不行)' 에 이어 '노인불수(老人不修)' 라는 말이 나온다. 조금 슬픈 말이지만 '늙으면 수행도 불가능하다' 는 뜻이다.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쉽지 않다. 하다못해 노는 것도 어렵다.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체력이 부족해서 만사가 귀찮기 때문이다. 극락이 눈앞에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막판이다. 나이를 먹으면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력이 매우 좋아져서 '파거불행' 이라도 수리를 하면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성능이 좋아 평소 잘만 관리하고 수리해주면 30년은 탈 수 있다. 얼마 전 뉴스에는 1960년대 항공모함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나왔다.

'노인불수(老人不修)' 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일이나 학문, 탐구, 공부는 노인이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80세까지도 가능하고 90세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작은 60대에 해야 한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탐구가 가장 좋다. 진리 혹은 고전이나 학문적인 탐구라면 더욱 좋다. 철학과 고전 학문은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보다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체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탐구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안일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단,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삶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파거불행, 노인불수' 는 나이를 먹고 몸이 쇠약해지면 공부도 못한다는 말이지만, 젊었을 때 안일하거나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충격적인 요법,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극약처방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는 "한 순간순간이 흘러 하루가 되고 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흘러 한 해가 되고, 한 해 한 해가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된다. 부서진 수레는 움직이지 못하고 늙어서는 수행할 수 없나니, 그런데도 누워서 빈둥빈둥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서 어지럽게 번뇌 망상을 피우네. 몇 생이나 사는 데(인생은 한 번), 허송세월하는가. 언젠가는 죽게 되리. 아, 급하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 시골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팽개치면 그날 일과가 끝났다. 복습이나 예습 같은 것은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방학 숙제는 개학 1주일 전 쯤 몰아서 했고, 당시는 일기도 숙제의 하나였는데, 그것도 개학 3~4일 전에 몽땅 몰아서 썼다.

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를 하셨다. "공부 좀 하거라.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그렇다고 말썽꾸러기는 아니었다. 공부만 안 할 뿐, 비교적 착한 편이었다(사실 시골 아이들치고 착하지 않은 아이가 거의 없다). 불교를 만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른이 훌쩍 넘어 뒤늦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력을 하는데도 공부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 보통 고생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기억력은 필요한데, 단어 하나 외우기도 힘들었다.

요즘은 책을 읽으면 절대 1시간을 버티지 못한다. 돋보기안경에 허리 디스크, 체력 등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즘은 정말 '파거불행(破車不行), 노인불수(老人不修)' 를 실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무상, 무아, 연기, 공의 이치를 모르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의 입장에서 어리석었던 걸 하나 말하라면 '파거불행, 노인불수' 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20년 전쯤에라도 '파거불행, 노인불수' 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어리석음의 하나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천고만고 부서지지 않는 설두 '일기일경'



격절록 강설

⑭ 3칙 백장불자화 6

[評唱 5]

古人道 "三日耳聾由自可 三聖瞎驢愁殺人" 且道 作麼生會他恁麼道.

고인(古人, 황룡혜남, 1002~1069)이 말했다.

"삼일이농(三日耳聾, 삼일 귀먹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삼성할려(三聖瞎驢, 눈 먼 나귀 같은 삼성)는 사람을 몹시 근심스럽게 한다."

자, 말해보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汾陽道 "悟去便休 說甚麼三日耳聾" 石門聰云 "若不是三日耳聾 爭承當得這一喝" 汾陽後來道 "我當時恁麼道 猶較石門半月程" 雪竇拈云 "奇怪 諸禪德 如今列其派者甚多 究其源者極少" 雪竇拈汾陽石門 總道百丈於喝下大悟 似則似 爭奈魚魯參差. 若是明眼漢 瞞他一點不得.

분양(汾陽, 분양선소, 947~1024)이 말했다.

"깨달으면 바로 쉬게 되거늘, 무슨 삼일 동안 귀가 먹었다는 식의 말을 하는가?"

석문 총(石門聰, 곡은온총, 965~1032)이 말했다.

"만약 3일 동안 귀가 먹지 않았다면, 어찌 저 일 할(一喝)을 알았겠는가?"

분양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뒤에 말했다.

"내가 당시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석문과 비교하면 반달 정도 거리 차이가 났다."

只如 "馬祖道 你已後開兩片皮 將何為人 百丈豎起拂子 為復是如蟲禦木 為復是啐啄同時" 殊不知 雪竇一口吞盡 亦乃盡神通妙用 拈出似與人. 既拈出他 且畢竟如何出他一隻眼.

그건 그렇고, (설두가 염하기를) "마조가 말하기를 '너는 이후에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뭘 가지고 사람을 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백장이 불자를 세운 것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 우연히 글자를 이룬 것인가,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동시에 쪼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것은 설두가 한 입에 다 삼켜버리고, 더 나아가 신통묘용을 다 해 사람들에게 끄집어내준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줬다면, 필경 어떻게 저 일척안(一隻眼)을 드러냈는가?

"你等諸人要見三日耳聾麼. 大冶精金應無變色" 這語句沉却多少人了也. 雪竇要出氣 露一機一境 千古萬古撲不破. 諸人且莫錯會好.

(설두가 염하기를) "그대들 모두는 3일 동안 귀먹는 것을 보고자 하는가? 위대한 대장장이가 정련한 금은 마땅히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어구에 많은 사람이 빠지고 만다. 이는 설두가 기염(氣)을 토해 일기일경(一機一境)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니 천고만고에 쳐도 부셔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 잘못 알지 말라! (3칙을 마친다.)

※삼성할려(三聖瞎驢)에 관해서는 앞으로 15칙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⑭ 믿음 편 14

욕구 거스르기 달인, 지장보살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참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 욕구를 거스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무리 배가 고픈 아버지라도 자식이 옆에 있으면 먹고 싶은 욕구를 참게 된다. 이처럼 사랑에는 욕구를 거스르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 가수 GOD의 '어머님께' 란 노래 속의 어머니는 결코 짜장면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자식이 어머니 생각해서 먹는데 주저할까봐 스스로 짜장면이 싫다고 말한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들은 생선 부위 중에서도 유독 머리와 꼬리 부분을 좋아한다. 정말이지 신비한 일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가난해진다고 하는가 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언젠가 어느 노보살님의 이런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밥상에 생선이 나오면 눈알을 정말 좋아하는 줄 알고 자식들이 그 부분만 자기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었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다르긴 다른가 보다.

불교에도 이러한 욕구 거스르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지장보살(地藏菩薩)이다. 지장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모두 벗어주고 자신은 땅(地)을 파고 들어가(藏) 추위를 피했다는 보살이다. 여기에도 추우면 입고 싶은 기본적 욕구를 거스르는 사랑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장보살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이 세운 서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지장보살을 가리켜 원이 가장 큰 분이란 뜻의 대원본존(大願本尊)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옥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서원이던가! 출가한 승려나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그 성불을 모든 이가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기본적 욕구는 물론 종교적 욕구마저 거스르는 위대한 행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이다. 이러한 유한한 실존 앞에서 인간은 무한하고 영원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모든 종교적 수행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욕구를 거스른 것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 정신의 극치라 할 것이다.

지장은 흔히 붓다 입멸 후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육도의 세계에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보살로 알려져 있다. 관음보살이 현실의 고통을 소멸해준다면, 지장보살은 죽은 뒤 지옥이나 아귀, 축생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소멸해준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명부(冥府)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9재 때 지장보살의 명호가 많이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보살이 명부전(冥府殿) 혹은 지장전의 주존으로서 불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과 달리 머리에 두건을 쓰거나 삭발한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당에서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한 손에는 기다란 석장(錫杖)을, 다른 한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명주(明珠)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한마디로 중생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문 앞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중생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평왕 때부터 지장신앙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장신앙은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널리 성행하고 있다. 음력으로 매월 18일은 지장재일이다. 이날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해 많은 이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종교적 행위에 딴죽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종교적 욕구를 거스르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했던 지장보살의 숭고한 이념을 중생들이 한번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짜장면을 싫어하고 생선 눈알만 좋아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